【2020년 태백산국립공원 랜선유아숲학교】

시기	강좌	시간	주요 내용	장소
6월	1강) 똑똑똑! 금대봉 하늘 꽃밭	0.5	– 금대봉 탐방예약제구간? – 꽃의 구조: 열매는 어떻게 생기나요? **체험) 누름꽃 부채 만들기**	두문동재 탐방로
7월	2강) 곤충은 신비로워!	0.5	– 태백산의 천제단과 당골 – 곤충의 역할과 환경지위 – 먹이그물과 생태계 이해 **체험)** 곤충 눈 만들기	당골 광장
8월	3강) 물방울 여행기	0.5	– 양대강의 발원지가 있는 우리고장 – 물은 생명의 뿌리 – 물방울 여행기 **체험)** 미니정수기 실험	검룡소 탐방로
9월	4강) 숲 속이 농부, 다람이	0.5	– 석탄길에서 꽃길까지 만항재 – 추석의 의미 – 다람쥐는 숲의 농부 **체험)** 자연 만화경 만들기	만항재
10월	5강) 가을은 올해의 결실	0.5	– 열목어가 사는 백천계곡 – 가을의 의미와 단풍이 물드는 이유 – 유아숲학교 수료식 **체험)** 약속의 편백팔찌 만들기 올 해의 나를 칭찬하는 엽서쓰기	백천계곡 탐방로

〈랜선유아숲학교 - 1강〉

6월 (랜선 유아숲)	들꽃이 인사하는 하늘꽃밭	활동장소	태백산 두문동재
		소요시간	10분
		참가대상	사전 모집한 유아
		참여인원	460명
		운영자	자연환경해설사 천서경

활동목표	• 금대봉 탐방예약제 구간의 운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꽃의 구조를 통해 열매를 맺는 인과관계를 알 수 있다.
영상 콘셉트	#. 금대봉 소개 #. 라이브해설 시작 #. 꽃마다 갖는 나만의 무기
준비물	• 마이크 등의 촬영도구, 빨간 봉투 그림, 꽃의 구조 해설판, 벌 모형, 지시봉, 부채 만들기 재료 등
유의사항	꽃을 꺾는 행위는 교육을 위한 일시적 행동이기에 따라하지 않기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 대상과 연결하기 – 각 기관의 통신 상황 및 영상·음향 확인 • 태백산국립공원 소개 – 국립공원이란? – 하늘꽃밭, 금대봉	2분
전개	• 초대받은 사람만의 꽃밭 – 특별보호구역과 탐방예약제 구간 • 오늘의 주제 – 꽃의 구조: 열매는 어떻게 생기나요? – 함박꽃을 통해 보는 꽃의 구조 – 백당나무의 생존전략 – 범꼬리의 어원	6분
마무리	•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나기 – 함께 만드는 누름꽃 부채 – 맺음말 및 영상과 체험키트 안내	2분

세부내용	이동순서 : 두문동재표지석 옆 → 두문동재 표지석 → 본 무대 (대상과 연결하기) : 두문동재 표지석 옆 (진행자 풀샷) 잠시 후, 태백산국립공원과 함께 하는 첫 번째 라이브 해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기관의 선생님께선 우리 친구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영상과 음향 체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라이브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태백산, 여기는 태백산. 우리 친구들, 영상과 소리가 잘 보이고 잘 들리나요? 영상과 소리가 괜찮다면 댓글로 '이상없음' 댓글 부탁드려요. (태백산국립공원 소개) 두문동재 표지석 옆 (진행자 풀샷) 여러분~ 모두 잘 들리죠? 태백산 첫 번째 라이브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참 화창하네요! 선생님은 태백산국립공원 천서경 해설사입니다. 만나서 모두 반가워요! 이름을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선생님을 부를 땐 꽃받침 선생님~ 하고 불러주세요! 한 번 불러 줄래요? 꽃받침선생님~ 좋아요! 이곳은 태백산국립공원 금대봉입니다. -국립공원이란?- 두문동재 표지석 옆 (진행자 풀샷) (해설판에 사진을 붙이며) 먼저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에서 자연경관이 멋지고 동물과 식물을 비롯한 다양한 생명들이 사는 곳을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국립공원이 많지만 우리나라에는 22개의 국립공원이 있고 우리 태백산이 막내산인 22번째 국립공원입니다! 그중에서도 태백산 금대봉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야생화, 즉 들꽃이 가장 다양하고 많은 곳이에요! -하늘꽃밭, 금대봉- 두문동재 표지석을 비추며(진행자는 본무대로 이동) (두문동재 표지석 화면을 보며) 화면에 보이는 백두대간 두문동재는 바로 금대봉의 입구에요. 해발은 높이를 말하는데 1,268m로 우리나라에서 차로 올라올 수 있는 두 번째로 높은 고개랍니다. (초대받은 사람만의 꽃밭) 본 무대 (진행자 풀샷) (초대장을 보이며) 짜잔! 이곳은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인데, 우리 친구들의 초대장은 여기 있나요? 초대장이 왜 필요하냐면요! 금대봉은 들꽃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요. 매년 4월에서 9월까지 초대를 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들꽃뿐만 아니라 곤충, 크고 작은 동물 등 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에 국립공원 내에서도 특별히 보호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족들과 함께 들꽃이 인사하는 하늘꽃밭에 오기 위해선 인터넷으로 먼저 예약하고 오세요~

(오늘의 주제) 본 무대 (진행자 풀샷)
그리고 오늘은 들꽃이 인사하는 하늘꽃밭에서 꽃은 어떻게 생겼고 열매는 어떻게 맺는 지를 다양한 꽃을 통해 보고 부채 만들기를 하려고 해요.

-꽃의 구조: 열매는 어떻게 생기나요?- 해설판 풀샷
(꽃의 구조 해설판을 보이며) 꽃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 꽃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꽃은 먼저 꽃 속엔 엄마인 암술과 아빠인 수술이 있구요. 그 가운데엔 씨앗주머니인 씨방이 있어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꽃잎이 있고 꽃을 받치는 꽃받침이 있어요. 선생님이 무슨 선생님이라고 했죠? 맞아요! 바로 이 꽃받침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보여주는 세 가지 꽃은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가져온 거예요. 원래는 꽃을 꺾어선 안되겠죠? 따라하지 않기, 약속!

-함박꽃을 통해 보는 꽃의 구조- 함박꽃 풀샷
(함박꽃을 지시봉으로 가리키며) 그림으로 보았으니, 실제 꽃을 통해 알아볼까요? 우와, 꽃이 참 크죠? 우리 친구들 손바닥을 앞으로 펼쳐 봐요! 네, 바로 친구들 손바닥 정도 크기의 큰 꽃인 이 꽃은 바로 함박꽃입니다.
태백시를 대표하는 꽃이자, 이맘때 산에도 학교에서도 볼 수 있는 꽃이죠.
꽃의 구조 그림을 통해 본 꽃잎과 그 안엔 엄마인 암술과 아빠인 수술이 보이지 않네요? 네, 여기 연두색의 씨앗주머니가 보이나요?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와 만나 소중한 친구가 태어난 것처럼 엄마인 암술과 아빠인 수술이 만나 씨앗 주머니에 씨앗이 자라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더욱 통통해져 가을엔 까만 씨앗이 만들어진답니다.

-백당나무의 생존전략- 백당나무 풀샷
(백당나무를 지시봉으로 가리키며) 그럼 다른 꽃을 볼까요? 우리 친구들은 내 자신 모습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혹 있나요? 이 꽃은 백당나무인데요. 자신의 꽃이 너무 작아서 벌과 나비가 오지 않아 슬퍼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머리핀처럼 가짜 꽃을 만들었어요. 친구들이 보는 이 꽃은 사실 가짜 꽃이고 가운데 이 부분이 진짜 꽃이에요. 어때요? 신기하죠? 꽃은 이렇게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가짜 꽃이란 나만의 무기를 만들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내 모습에 실망하지 않고 자연을 통해 배우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범꼬리의 어원- 범꼬리&해설판 풀샷
(범꼬리를 보이며) 그럼 준비한 꽃 중 마지막 꽃인 범꼬리를 보여줄게요. 어때요? 분홍색의 통통한 꽃 모양이 마치 강아지풀을 닮았지요? 범꼬리란

이름의 뜻 무엇인지 아는 친구 있나요? 힌트를 주자면! 범은 어떤 동물을 뜻해요!
과연 무엇일까요? (해설판과 해설사를 잡으며) 네, 맞아요. 범은 호랑이를 의미해요. 그러니 범꼬리는 바로바로~ 호랑이 꼬리를 말하죠. 옛날에 나물을 캐던 할머니가 이 꽃을 보고 호랑이 꼬리인 줄 알고 깜짝 놀랐지 뭐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범꼬리가 되었단 어원이 있어요.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나기) 진행자 풀샷
어때요? 그냥 보아도 예쁜 들꽃들, 자세히 보면 더욱 신기하고 재밌죠? 우린 친구들 손바닥만한 함박꽃을 통해 꽃의 구조를 보았고 백당나무를 통해 나만의 무기를 만드는 법도 배웠죠. 그리고 동물에서 이름을 딴 범꼬리도 보았어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을 직접 보고 이야기해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그래도 재밌게 봤겠죠? 그럼 누름꽃 부채 만들기로 마무리 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함께 만드는 누름꽃 부채- 부채 만들기 풀샷
(세팅해둔 오른 편으로 화면을 클로징하며) 친구들, 모두 선생님이 미리 보낸 체험키트 받았나요? 체험키트 안엔 라이브해설에서 미처 보지 못한 다양한 들꽃과 부채 만들기 영상이 있으니, 지금은 선생님이 하는 걸 우선 보고 이따 함께 있는 유치원&어린이집 선생님과 만드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해요.
먼저 체험 키트에서 부채 재료를 꺼내 볼게요. 어떤 것이 들었나? 아, 부채와 이쑤시개, 누름꽃이 들었네요. 이 누름꽃은 태백산의 들꽃이 아니라 체험용으로 구매한 꽃이에요. 산에 있는 꽃을 보기 힘들어 준비했으니, 우리 멋지게 만들어 봐요! 누름꽃을 싼 꽃 모음지를 펼쳐서 꽃을 보면, 우와~ 알록달록한 누름꽃이 들어있어요. 꽃 모음지가 날아가지 않도록 한 편에 부채로 누른 후, 꽃을 붙이기 위해선 목공용풀이 필요해요. 풀을 여기에 꾹~ 짜볼게요. 이쑤시개는 뾰족한 부분과 둥근 부분이 있는데, 뾰족한 쪽으로 풀을 붙여서 꽃을 콩-하고 찍으면 꽃이 붙죠? 꽃을 뒤집어서 부채에 살살살-하고 이쑤시개는 빼고 둥근 부분으로 콩콩콩-하고 눌러주면 짜잔-하고 꽃이 붙어요. 그럼 한 번 더 해볼게요. 뾰족한 쪽에 풀을 붙여서 꽃을 콩-하고 찍으면 꽃이 붙죠? 꽃을 뒤집어서 부채에 살살살-하고 이쑤시개는 빼고 둥근 부분으로 콩콩콩-하고 눌러주면 짜잔-하고 꽃이 붙어요. 그럼 이렇게 다 붙이면 되는데, 힝- 선생님은 밖이라 바람에 자꾸 꽃이 날리네요? 먼저 만들어 놓은 거 보여줄게요! 짜잔- 어때요? 근사하죠? 이렇게도 멋지지만 선생님은 이름을 쓰고- 좋아하는 글자와 그림으로 꾸며 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글자를 좋아하나요? 선생님은 친구들이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을 나기를 바라서 '여름'하고 적어봤어요. 우리 친구들은 엄마, 아빠 사랑해요도 좋고 좋아하는 글자를 써봐요. 이렇게 그림도 그려서 완성!

	-맺음말 및 영상과 체험키트 안내- 진행자 풀샷 어때요? 우리 친구들도 잘 만들 수 있겠죠? 체험키트엔 부채만들기 재료와 꽃과 부채만들기 영상이 있어요. 보다 천천히 안내했으니, 함께 계신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랄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그럼 혹 질문이 있다면 함께 계신 선생님께 말씀 드려서 댓글로 질문을 주세요. 질문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럼 부채만들기로 조금이나마 우리 친구들이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나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감사합니다, 태백산국립공원 꽃받침 선생님, 천서경해설사였습니다. 안녕~ 또 만나요!

〈랜선유아숲학교 – 2강〉

7월 (라이브 해설)	곤충은 신비로워!	활동장소	태백산 당골광장
		소요시간	10분
		참가대상	사전 모집한 유아
		참여인원	460명
		운영자	자연환경해설사 천서경

활동목표	• 여름철 많아진 곤충과 곤충의 역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곤충 스토리텔링을 통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
영상 콘셉트	#. 곤충이란 #. 곤충의 역할 #. 곤충과 친해지기
준비물	• 마이크 등의 촬영도구, 곤충 모형, 곤충 사진, 지시봉, 곤충 눈 목걸이 만들기 재료 등
유의사항	꽃을 꺾는 행위는 교육을 위한 일시적 행동이기에 따라하지 않기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 대상과 연결하기 – 각 기관의 통신 상황 및 영상·음향 확인 • 태백산국립공원 소개 – 우리 동네 큰 산, 태백산에 왔어요.	2분
전개	• 주제관련 브레인스토밍: 여름철 불청객 – 더운 여름, 귀찮은 벌레는 왜 있는 걸까? • 오늘의 주제: 곤충 – 곤충의 역할(지렁이, 나비와 벌, 잠자리) • 오늘의 체험키트: 곤충 눈 목걸이 만들기 – 곤충의 눈으로 보아요.	6분
마무리	• 안녕, 내 친구 곤충! – 동갑내기 매미가 친구에게 하는 말 – 맺음말 및 영상과 체험키트 안내	2분

세부내용	촬영장소: 당골 랜드마크 (대상과 연결하기) : 당골랜드마크 앞 (진행자 풀샷) 잠시 후, 태백산국립공원과 함께 하는 두 번째 라이브 해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기관의 선생님께선 우리 친구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영상과 음향 체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라이브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태백산, 여기는 태백산. 우리 친구들, 영상과 소리가 잘 보이고 잘 들리나요? 영상과 소리가 괜찮다면 댓글로 '이상없음' 댓글 부탁드려요. (태백산국립공원 소개) : 당골랜드마크 앞 (진행자 풀샷) 여러분~ 모두 잘 들리죠? 태백산 두 번째 라이브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참 화창하네요! 선생님, 지난 수업에 만났었는데, 기억하고 있는 친구 있나요? 좋아요! 저는 태백산국립공원 천서경 해설사입니다. 만나서 모두 반가워요! 이름을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선생님을 부를 땐 꽃받침 선생님~ 하고 불러주세요! 한 번 불러 줄래요? 꽃받침선생님~ 좋아요! 이곳은 태백산국립공원 당골광장입니다! -우리 동네 큰 산, 태백산에 왔어요- : 당골랜드마크 앞 (진행자 풀샷) 이곳에 와 본 친구 있나요? 겨울에 눈 축제할 때 썰매도 타고 멋진 눈 조각을 보았던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 동네인 태백시를 둘러싸고 있는 큰 산인 태백산에서 친구들에게 인사하고 있어요. 태백산은 한자로 '크고 밝은 산'이란 의미이고 정상엔 하늘에 제를 지내는 '천제단'이 있는 곳이에요. 태백산국립공원의 바로 그 태백산이기도 하죠. (주제 관련 브레인스토밍: 곤충) : 당골랜드마크 앞 (테이블로 이동) (테이블로 이동하며) 아이 따가워라! 요즘같이 더운 여름엔 뜨거운 더위도 힘들지만 바로 이 벌레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모기에 물린 사람 없나요? 더위만큼이나 모기는 여름철 반갑지 않은 친구죠. 낮에는 맴맴맴- 시끄럽게 우는 매미도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가 바로 이러한 곤충들이에요. (오늘의 주제: 곤충) 본 무대 (진행자 풀샷) (해설판을 보이며) 친구들, 혹시 좋아하는 곤충 있나요? 선생님은 잠자리를 좋아해요. 멋진 날개를 쭉 펴고 늠름하게 푸른 하늘을 나는 잠자리가 참

근사한 것 같아서요. 우리 사람 입장에선 귀찮기도 하고 아프게 물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는 곤충, 왜 존재하는 걸까요? 자연에 있는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은 것은 없어요.

–지렁이, 나비와 벌, 잠자리를 통해 보는 곤충의 역할–
친구들이 모두 잘 아는 4개의 곤충을 통해 곤충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렁이 사진) 꿈틀꿈틀~ 땅 속에서 살며 비가 오면 땅 위로 올라오는 '지렁이'입니다. 햇빛도 없고 답답한 땅 속에서 지렁이는 어떻게 사는 걸까요? 지렁이는 땅 속에서 흙을 먹고 배설하며 땅을 건강하게 만들어 줘요. (지렁이 사진2) 땅 위에서 농부아저씨가 농사를 짓는 것처럼 지렁이는 땅 속에 공기도 넣어주고 동물의 똥이나 나뭇잎이 다시 흙으로 잘 섞여서 영양이 있는 땅으로 만들어서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땅 속의 청소부, 농부랍니다. 지렁이가 없다면 땅은 지독한 냄새가 날 뿐,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땅이 될 거에요.
두 번째 (나비와 벌) 알록달록한 날개를 자랑하는 나비와 윙윙– 소리를 내며 꿀을 먹는 벌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꽃의 구조를 통해 열매가 어떻게 생기는 지 알아 보았었죠? 모든 식물의 대부분이 나비와 벌과 같은 곤충이 없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새콤달콤한 과일도 아삭아삭한 채소도 먹을 수 없겠죠? 그래서 나비와 벌은 열매 마법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자리)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잠자리입니다. 잠자리는 어릴 땐 물속에서 3,000마리의 모기 애벌레를 잡아먹으며 커서는 잠자리로 모기를 하루 100마리 이상 먹는 답니다. 모기도 자연에 꼭 필요한 존재이지만 우리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기에 우리에겐 참 고마운 잠자리이죠.

(오늘의 체험키트: 곤충 눈 목걸이 만들기)
(완성된 곤충 눈 목걸이를 보여주며) 곤충의 종류는 아주 다양해서 라이브 해설로 모두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가장 잘 알 수 있는 곤충 이야기로 보다 곤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떨까하고 이렇게 수업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만들기는 바로바로~ 곤충 눈 목걸이 만들기인데요!
곤충은 개구리도, 다람쥐도, 물고기도 아주 많은 동물들의 먹이가 되기에 항상 위험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겹눈'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모자이크처럼 여러 개로 볼 수 있죠. 고마운 꿀벌 모양의 판을 먼저 원하는 색으로 꾸며준 다음에, 곤충의 눈을 붙이고 목걸이를 걸면 완성! 우리 친구들, 주말에 엄마, 아빠랑 숲에 놀러 온다면 이 목걸이를 통해 나무도 보고 꽃도 보고 엄마, 아빠 얼굴도 본다면 아주 재밌을 거예요!

(안녕, 내 친구 곤충!)
맴맴맴- 친구들에겐 조금 시끄러울 수 있는 여름철 나무에 매달려 노래하는 '매미'는 모두 친구들과 친구랍니다. 땅 속에서 7년을 보내고 이 여름날에만 열심히 노래를 불러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알을 낳고 나면 매미는 죽고 맙니다. 일곱 살 매미의 우렁찬 노랫소리, 우리 친구들의 친구인 매미의 노랫소리라 생각한다면 매미소리가 일곱 살 친구들에게 추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맺음말 및 영상과 체험키트 안내- 진행자 풀샷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 질문이 있는 친구 있나요? 네, 좋아요. 친구들 애벌레 100마리 중 단 1마리만이 나비로 살아남는 자연에서 나비를 만난다면 잠자리채로 잡지 말고 '나비야, 만나서 반가워!'라고 인사하면 어떨까요?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보내길 바라며, 이후 만들기 영상과 곤충 눈목걸이 만들기로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태백산국립공원 꽃받침 선생님, 천서경해설사였습니다.
안녕~ 또 만나요!

〈랜선유아숲학교 - 3강〉

8월 랜선 유아숲	**물방울 여행기** **(한강의 시작, 검룡소)**	활동장소 해설시간 참가대상 참가인원 운영자	태백산국립공원 검룡소 20분 사전 모집한 유아 단체 460명 자연환경해설사 천서경

활동목표	• 물 창작동화와 실험을 통해 물의 역할 및 자정작용을 이해할 수 있다. • 우리 고장 내 양대강 발원지의 가치를 알고 환경자존감을 키울 수 있다.
준비물	• 검룡소, 황지연못 사진자료, 물 지도, 물방울 여행기 스토리북, 물 정화 키트, 환경 다짐 이야기판 등
유의사항	물 정화 키트로 정화된 물은 실험용일 뿐, 음용할 수 없음을 알린다. 더불어 계곡 내 깨끗해 보이는 물이라도 음용하는 것은 위험함을 이야기 한다.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 **한강의 시작, 검룡소에 왔어요.** - 우리 고장에는 길고 큰 2개의 강이 시작된대요.	2′
전개	• **우리나라엔 5개의 큰 강이 있어요.** - 자연에서 물이 하는 역할 • **전설각색동화_물방울 여행기** - 물의 순환과 어머니와 같은 소중한 물 • **물 정화 실험** - 물의 자정작용 이해하기	13′
마무리	• **양대강의 시작,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 - 우리고장엔 양대강의 시작이 하는 곳이에요! - 우리는 어린이 물 지킴이, 함께 물을 사랑해요!	3′

세부 내용

(한강의 시작, 검룡소에 왔어요) 검룡소 표지석 앞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백산국립공원 천서경 해설사, 꽃받침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벌써 8월이네요. 그동안 모두 모두 잘 지냈나요? 그렇구나! 선생님도 친구들과 만날 오늘을 기다리며 잘 지냈답니다.

<table>
<tr><td></td><td></td></tr>
<tr><td>검룡소 사진
(겨울에도 얼지 않는 곳)</td><td>황지연못 사진</td></tr>
</table>

오늘은 한강의 시작, 검룡소에 왔어요. 우리 친구들 이 곳에 와 본 적 있나요? 한강은 우리 태백에서 시작해서 강원도, 충청도, 경기도를 지나 서울로 흘러 '한강'이 되며 서해바다까지 흘러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강을 말합니다. (검룡소 사진을 보여주며) 검룡소는 이 길을 따라 40분 정도 걸어가면 만날 수 있어요.

또 하나, (황지연못사진을 보여주며) 시내에 있는 연못인 황지연못 모두 가보았죠? 황지연못은 경상도를 거쳐 부산을 통해 남해바다로 가는 '낙동강'의 시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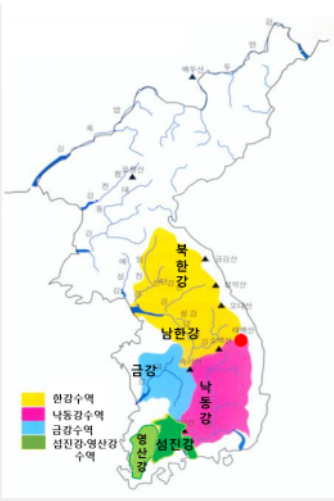
우와, 우리 고장에는 서울로 흐르는 한강과 부산으로 흐르는 낙동강의 시작이 있구나. 참 근사하죠?

(우리나라에는 5개의 큰 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5개의 큰 강이 있어서 강을 따라 숲도 있고 도시도 생겨서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죠. (물 지도를 보여주며)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방금 이야기했던 한강, 낙동강 그리고 충청도에 흐르는 금강과 전라도에 흐르는 영산강과 섬진강으로 총 5개의 큰 강이 있고 그 사이사이 작은 강과 개울이 연결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 큰 강 주변에 큰 도시와 숲이 있는 이유는 우리 사람도, 자연 속 누구든 '물'이 없다면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연에서 물이 하는 역할은 아주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생명'이 탄생하고 생명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자연의 어머니입니다.

그럼 이러한 물은 가만히 있지 않고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비가 하늘에서 내리면 강물이 바닷물이 되고 땅 속으로 스며드는데, 물은 어떤



여행을 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태백의 삼수령 전설을 각색한 동화로 소개해볼게요!

(전설각색동화_물방울 여행기)

– 물방울 여행기 스토리북 ① – 하늘에서 내리는 물 안녕? 친구들! 난 아기 물방울 '우리'라고 해. 여긴 나랑 엄마랑 아빠랑 살고 있는 하늘나라야. 여름날의 하늘엔 덥고 축축해서 물방울 가족들이 많이 살아. 어? 하늘이 물방울로 가득차서 이제 우리의 여행이 시작 될 건가봐! 친구들, 나 놓치지 말고 잘 따라와~ 오오오오~ (우리 태백엔 '삼수령' 이란 고개가 있어요. 삼수령 꼭대기에 우리네 가족이 앉아 있네요?)

– 물방울 여행기 스토리북 ② – 삼수령에서 헤어진 물방울 가족

친구들, 여기가 친구들이 사는 태백이구나! 상쾌한 공기와 멋진 산까지! 내가 태어난 하늘나라처럼 근사한 곳인 것 같아! 어? 어지러워~ 여기가 어디지? 엄마! 아빠! 흑흑, 친구들 엄마랑 아빠랑 헤어지게 됐어. 나 어쩌면 좋지? (우리야, 안녕? 여긴 한강의 시작, 검룡소야. 엄마, 아빠는 각 낙동강과 동해로 흐르는 오십천으로 흘러갔어. 그렇지만 다시 하늘에서 만날 거야!)
알겠어요! 그럼, 난 어디로 가면 되나요? (친구들, 아까 검룡소의 물은 서울을 지나 서해바다로 흘러간다고 했죠? 우리 함께 물방울 '우리'가 엄마랑 아빠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까요?)

– 물방울 여행기 스토리북 ③ – 검룡소에서 서해바다까지

검룡소에서 시작된 아기 물방울 '우리'의 모험, 함께 시작해볼까요? 깨끗한 검룡소를 시원하게 통과하던 '우리'는 숲을 지나다가 그만 '고라니' 입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네요! ('우리' 살려~) 시간이 지나 고라니의 소변으로 나온 '우리'의 몸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었네요. 괜찮아요, 여기 '토란'이란 식물이 동물의 몸 속에서 나온 우리를 깨끗하게 정화해줄 거예요! (야호~)

다시 길을 떠난 '우리'는 그만 샴푸물과 만나고 말았어요. 친구들이 샴푸를 많이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으악, 눈이 너무 따가워~) 걱정 말아요! 저기

보이는 댐을 지나면 '정수장'이 나와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해줄 거예요. (휴~ 다시 깨끗해졌어~) 어느 덧 서울이 보이네요! 한강에 다다른 '우리'는 수도관을 타고 들어가 사람 몸 속에도 들어가고 다시 변기로 나오고 하수처리장을 지나 '서해바다'에 다다랐어요. (우와~ 엄청 큰 물이다! 여기가 서해인가봐!) 그러다가 따뜻한 햇볕에 몸이 가벼워진 '우리'는 두둥실~ 떠올라서 하늘나라로 날아갔어요. 그곳에서 기다리던 엄마와 아빠랑 만난

'우리'는 그동안 겪었던 물방울 여행기를 이야기하며 행복해했답니다.



-물의 순환 그림 자료-

친구들, 어때요? 하늘나라에서 비로 내린 '우리'가 '검룡소'를 시작으로 한강의 물줄기를 따라 고라니도 몸 속도 들어가고 식물에게 정화도 되고 사람의 식수가 되기도 하며 다시 하늘로 돌아갔죠? 이러한 물방울 여행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물의 순환'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볼까요?

물은 하늘에서 비로 내려서 땅 위를 흐르거나 땅 속으로 스며듭니다. 스며든 물은 지하수, 땅 위에 흐르는 물은 '강'이 되어 사람이 마시고 생활하며 쓰고 동물과 식물이 마시는 물이 된답니다.

(물 정화 실험)

아까 동화에서 '정수'란 말이 나왔죠? 바로 정수기의 그 정수에요. 뜻은 물을 깨끗하게 하는 건데요. 물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기에, 조금 어려운 말로 '물의 자정작용'이라 한답니다. 물은 자연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깨끗해집니다. 그럼 우리도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실험, 해볼까요?



먼저 이 그림 볼까요? (그림1) 숲은 자연 속 정수기란 그림인데 숲의 어떤 것들 때문에 물이 깨끗하게 정화될 수 있을까요? 바로 큰 돌, 작은 돌, 모래, 진흙 등의 물질 때문입니다.

자연의 이러한 원리를 정수기에도 적용해서 우리가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실험 해볼게요!

5개의 유리컵에 먼저 거름망을 넣고 각 큰 돌, 작은 돌, 모래, 진흙을 넣습니다. 그리고 한 유리컵엔 흙을 넣은 '흙탕물'을 넣어요. 차례차례 쌓은 다음, 천천히 흙탕물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넣는다) 큰 돌 사이는 틈이 크기에 물도 빨리 나오죠?

점점 입자가 작아질수록 물이 통과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면서 서서히 물에 묻은 흙들이 떨어져 '깨끗한 물'이 되는 거예요.
어땠나요? 흙탕물이 다시 투명하게 정화되는 것은 선생님도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지금 진흙이 담긴 통을 자세히 보면 물을 머금고 있는 것이 보이죠? 숲은 물을 정화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숲 아래에 물을 저장하는 기능도 하고 있어서 숲을 '녹색 댐'이라고 합니다.

(양대강의 시작,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
어때요? 친구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물' 정말 대단하고 고맙지 않나요? 친구들, 우리가 쓰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도 물이 필요한 거 알고 있나요? 달콤한 과자, 빵을 만드는데 필요한 설탕 1킬로그램을 만드는 데에는 약 80리터, 그러니까 큰 페트병이 2리터니까 페트병 40개정도의 물이 필요하고 친구들 그림 그리고 글자를 쓰기 위한 종이 1킬로그램에 200미터의 물, 그니까 페트병 100개의 물이 필요하죠. 우리 친구들, 햄버거 좋아하나요? 햄버거 1개를 만들기 위해선 그 안의 고기와 채소 등 재배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 약 큰 욕조 16개를 채울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자연도 너무 많이 쓰면 닳아 없어집니다. 자연에겐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함께 노력한다면 오랫동안 깨끗한 자연에서 살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물건을 쓰고 편리한 삶을 살면서 자연은 너무나 많이 병들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지금 친구들 마다 소중한 물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환경다짐 한 가지씩 이야기해볼까요? 선생님들이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선생님도 함께 고민하며 여기 환경 다짐판에 붙여 볼게요.
좋아요, 샴푸 조금만 쓰기, 친환경 세제 쓰기, 물 아껴 쓰기 등등 모두 좋아요!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우리'와 같은 물방울들이 건강한 물의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우리 고장엔 한강과 낙동강의 시작인 양대강의 시작이 있죠. 이러한 사실은 굉장히 우리 모두 자랑스러워 할 일이에요! 다른 지역에 사는 가족, 친구들에게 오늘, 이번 주말에 자랑해보세요!
우리 친구들, 지금 이 라이브해설이 끝난 후, 실내영상과 함께 물 정화 실험도 직접 해보고 물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과 친구들과 이야기 해보세요. 우리 태백에 사는 친구들은 모두모두 어린이 물 지킴이로 꽃받침 선생님이 임명할게요!
그럼, 즐거운 이 시간 아쉽지만 마무리할게요. 남은 여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고 선생님과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랜선유아숲학교 - 4강〉

9월 랜선 유아숲	숲의 농부, 다람이	활동장소 해설시간 참가대상 참가인원 운영자	태백산국립공원 만항재 20분 사전 모집한 유아 단체 460명 자연환경해설사 천서경

활동목표	• 다람쥐의 생태 이야기를 통해 겨울을 준비하는 동물을 이해할 수 있다. • 다람쥐와 도토리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우리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준비물	• 다람쥐 스토리텔링북, 모형 도토리, 다람쥐·멧돼지·곰·사람 그림자료, 자연만화경 체험 키트, 만항재 사진자료, 석탄사진 등
유의사항	체험키트 내 작은 조각 등 입에 넣지 않기 숲에 갔을 때, 야생동물에게 먹이 주지 않기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 **석탄길은 이제 꽃길로, 아름다운 만항재** - 고마운 석탄과 건강을 되찾은 만항재 이야기	2′
전개	• **추수를 감사하는 '추석'** - 다가오는 명절인 '추석'의 의미 • **숲의 농부, 다람이: 스토리텔링 북** - 다람이의 방을 소개합니다. - 숲의 농부, 다람이의 행복한 추수 • **자연만화경 체험키트 만들기** - 신기한 만화경으로 도토리를 관찰해요.	13′
마무리	• **숲은 주고받으며 건강해져요.** - 다람쥐와 도토리의 나눔 이야기 - 우리가 자연에게 받고 있는 것과 줄 수 있는 것	3′

세부내용	(석탄길은 이제 꽃길로, 아름다운 만항재) 하늘숲공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백산국립공원 천서경 해설사, 꽃받침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벌써 9월이네요. 그동안 모두 모두 잘 지냈나요? 그렇구나! 선생님도 친구들과 만날 오늘을 기다리며 잘 지냈답니다! 날씨가 이제 선선해졌죠? 무더운 더위도 무서운 태풍도 모두모두 지나가고 열매가 무르익고 나뭇잎이 옷을 갈아입는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차로 올라올 수 있는 가장 높은 고개인 '만항재'에 왔어요. 우리 친구들 이 곳에 와 본 적 있나요? 지난 달 이곳에선 '야생화 축제'가 있었어요. 예전에 (석탄 자료사진) 이곳엔 까만 석탄을 캐던 광산이 있던 곳에요. 그래서 아직 (폐석지 사진) 주변 곳곳엔 까맣게 얼룩진 곳이 있답니다. 이 까만 돌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돈을 벌어서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 수 있는 거랍니다. 하지만 돈을 벌 수 있게 도와준 석탄은 많이 쓰면 쓸수록 하늘과 강이 새카맣게 변하고 나무가 죽고 말았죠. 그래서 지금은 꽃을 심고 나무를 가꾸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길로 변했어요. 석탄 길에서 꽃길로 바뀐 만항재, 이번 추석 때 할아버지, 할머니를 뵈면 '우리나라를 부자 나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드리면 어떨까요? (추수를 감사하는 '추석') 어? 할아버지, 할머니와 떨어져 살아서 말씀 드리기 어렵나요? 다음 주인 10월 1일은 추석이니 온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추석 아나요? 봄에 심었던 벼, 우리가 먹는 '쌀'이 익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쌀'로 만드는 것을 조금 어렵게 이야기해서 '추수'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추수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그동안 고생했던 가족을 서로 격려해주는 날이 바로 '추석'입니다. (숲의 농부, 다람쥐: 스토리텔링 북) 그런데 숲에도 이 '추수'를 하느라 바쁜 동물이 있어요. 바로바로~ '다람쥐' 인데요. 과연 다람쥐가 어떻게 추수를 하는 지, 이야기 책을 통해 볼까요? - 숲의 농부, 다람이 스토리북 ① - 다람쥐의 방 (청소하는 다람이) 쓱쓱-싹싹- 추운 겨울에 편안히 잘 수 있도록 깨끗이- 방을 청소합니다~ 어? 안녕? 난 만항재 숲에 사는 다람쥐, '다람이'라고 해. 너희는 누구야? 아~ 그렇구나. 태백산 어린이친구들? 아, 나 지금 뭐하냐고? 겨울잠을 자기 위해 방 청소를 해. 부지런히 도토리를 추수하러 가야 하거든. 나 따라올래?

- 숲의 농부, 다람이 스토리북 ② - 도토리를 추수해!
친구들, 어때? 내 도토리 나무에 도토리가 주렁주렁- 근사하지? 왜? 도토리 달라고? 그건 곤란해. 나말고도 숲에는 도토리를 먹는 친구들이 많거든.
사실 이 도토리나무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심었던 거야. 도토리나무가 이렇게 많은 도토리를 맺기 위해선 오랜 시간이 필요하거든. 응? 다람쥐가 어떻게 나무를 심었냐고? 궁금해?

- 숲의 농부, 다람이 스토리북 ③ - 숲의 농부, 다람이
우리 다람쥐들은 작은 곤충도 먹고 다양한 열매도 먹지만 그 중에서도 '도토리'를 가장 좋아해. 친구들도 나도 손은 두 개지? 물건을 많이 담고 싶을 때 친구들은 가방을 쓰지만 난 커다란 내 볼에 넣어. 그런데도 다 들어가지 않는 도토리는 땅에 묻어놔. 나중에 먹으려구! 그런데, 다람쥐들은 깜빡깜빡! 하기 때문에 묻어놓은 도토리를 잊어버리지. 그러면 도토리는 땅 속에서 쑥쑥 자라서 나무가 돼.
(도토리나무) 친구들~ 도토리나무에요! 다람이 말처럼 우리 도토리나무는 아기 도토리들이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아주 많은 도토리를 만들어. 다람쥐도 멧돼지도 다 먹고 남을 만큼 만들면 남은 것은 땅으로 가서 나무가 될 수 있거든.

- 숲의 농부, 다람이 스토리북 ④ - 다람쥐의 방
(도토리를 쌓고 있는 다람이) 어? 왔어? 어때? 우리집에 도토리로 가득하지? 이건 우리 할아버지가 심은 나무의 도토리, 저건 할머니가, 아빠, 엄마가...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옆 산에 사는 엄마, 아빠에게 가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오려구. 친구들도 추석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뵙거나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뵙지 못하면 전화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면 어떨까? 아~(하품) 친구들, 난 이제 피곤해서 자야겠어. 아참! 숲에 가서 '도토리'를 보면 신기해서 만져보거나 1~2알 정도는 가져가도 내가 참겠지만 기왕이면 도토리는 나와 같은 다람쥐, 멧돼지 친구들이 겨울동안 먹을 수 있도록 숲에 두면 어떨까?
할아버지, 할머니께도 꼭꼭! 도토리는 다람쥐랑 멧돼지꺼라고~ 이야기해줘!
고마워, 친구들! 숲에 오면 멀리서 인사할게! 사랑해~
친구들, 어때요? 다람쥐가 나중에 먹으려고 숨겨둔 도토리가 땅 속에서 싹이 터 나무가 되었죠? 실제로 다람쥐가 숨긴 도토리 10알 중 7알은 땅 속에서 나무로 자란대요. 다람쥐는 도토리를 먹기도 하지만 숲의 농부로 심기도 하죠.

(자연 만화경 체험 키트 만들기)
그럼, 우리 친구들이 도토리는 다람쥐에게 양보하고 도토리 쓴 모자인 '깎지'를 관찰해보고 만져볼텐데요. 그냥 보아도 좋지만, 우리 자연 만화경을 만들어서 관찰해봐요.

오늘의 만들기는 '자연 만화경 만들기'인데요. 만화경은 멀리 볼 수 있는 망원경과는 조금 다른 거에요. 안에 거울이 있어서 그냥 보는 것과는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어떤 재료들이 있는 지 볼까요?
만화경 체험 키트 준비물은 만화경 몸통, 위와 아래의 뚜껑, 투명필름과 반투명필름, 거울처럼 모습이 보이는 반사지, 색칠도안, 여러 모양의 장신구, 스티커, 반짝이 종이가 있어요. 반짝이 종이는 추가로 있는 거라서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먼저 도토리와 솔방울을 색칠해볼까요? 색연필, 크레파스, 사인펜 모두 좋아요~
쓱싹쓱싹 색칠한 후에, 뒤에 스티커를 떼서 만화경 몸통에 조심조심 붙여 볼게요. 반투명필름과 큰 동그라미 뚜껑을 함께 아래 부분에 연결하고 거울과 닮은 반사지를 세모 모양이 되도록 스티커로 고정해서 안에 넣어요.
그 다음엔 여러 모양의 장신구를 넣어도 좋고, 아니면 선생님이 보낸 도토리 깎지를 넣고 투명필름과 위 뚜껑을 함께 끼우면 완성!
과연, 도토리깎지는 어떻게 보일까요? (사진자료) 바로 이렇게 보여요! 거울처럼 생긴 반사지에 모습이 비춰서 이렇게 보이는데요. 어때요? 신기하죠?
요즘 숲에 나가면 떨어진 열매가 많아요. 돋보기로 보아도 신기하지만, 만화경으로 보면 다르게 보이죠.

(숲은 주고받으며 건강해져요.)
어때요? 친구들? 우리 사람의 눈으로만 보는 숲은 실제와 다를 거에요. 다람쥐는 그냥 도토리나무의 도토리만을 따서 먹고 나무는 다람쥐에게 도토리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다람쥐가 도토리를 심기도 하고 동물들도 추운 겨울을 준비하기도 했죠? 사실 숲은 굉장히 서로 주고받으며 건강해지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사람은 자연에게 무엇을 받고 있으며 무언가를 줄 수 있을까요? 숲에 오면 느낄 수 있는 맑은 공기, 계곡에 흐르는 깨끗한 물, 주렁주렁 열린 나무열매, 알록달록 잎을 갈아입는 나무들, 모두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다음 주 추석,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명절 보내길 바라면서 우리 친구들, 이제 마지막 시간만 남았는데요.
쌀쌀해지는 날씨 감기 조심하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요! 선생님과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랜선유아숲학교 - 5강〉

10월 랜선 유아숲	**가을은 올해의 결실** **-태백산 숲학교 졸업-**	활동장소	태백산국립공원 백천계곡
		해설시간	20분
		참가대상	사전 모집한 유아 단체
		참가인원	460명
		운영자	자연환경해설사 천서경

활동목표	• 가을의 계절적 변화 및 의미를 이해하고 계절감을 키울 수 있다. • 숲학교 졸업의 의미를 알고 환경 지킴이의 약속을 이해할 수 있다.
준비물	• 가을 이야기판, 열목어 사진, 엽서, 필기구, 씨앗연필 등
유의사항	나뭇잎을 주울 때, 새 잎은 꺾지 않기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백천 계곡** - 열목어와 열목어를 지키는 사람이 사는 곳	2′
전개	• **가을은 옷을 갈아입는 계절: 이야기 판** - 단풍이 물드는 이유 • **겨울을 준비하는 자연** - 열매와 겨울눈 - 겨울잠을 자는 동물 • **숲학교 졸업 선물** - 약속의 편백팔찌 만들기	13′
마무리	• **태백산 숲학교 졸업식** - 자연과 우리는 하나 - 환경지킴이로서의 약속과 다짐	3′

세부내용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백천계곡) 백천계곡 입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백산국립공원 천서경 해설사, 꽃받침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벌써 10월이네요. 그동안 모두 모두 잘 지냈나요? 오늘은 태백산국립공원에서 단풍이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한 '백천계곡'에 나와 있어요. 이곳은 우리 태백산의 동물대표인 '열목어'가 사는 곳이자 열목어를 지키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는 곳이에요. (열목어 사진을 보여주며) 열목어는 이렇게 생긴 물고기에요. 아주 맑은 물에서만 살고 북극곰처럼 차가운 것을 좋아하는 친구라서 태백산이 전세계적으로 제일 남쪽에 있는 서식지랍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 열목어와 열목어가 사는 백천계곡을 많이 사랑해주면 좋겠어요. (가을은 옷을 갈아입는 계절: 이야기판) 친구들, 쌀쌀해지던 날씨가 이제 제법 춥죠? 이젠 모두 긴팔옷으로 갈아입었죠? 가을은 옷을 갈아입는 계절인데요. 우리 사람도 옷을 갈아입지만네, 맞아요. 나뭇잎이 옷을 갈아입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갈다, 거두다, 갖다'라는 말로 '가을'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뭇잎도 추워서 옷을 갈아입는 걸까요? 단풍잎은 어떻게 붉은색으로 옷을 갈아입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날씨가 추워지면 햇빛 에너지도 줄어들게 되요. 친구들, 손에 물이 묻어있을 때 바람이 불면 더욱 추운데, 아나요? 그건 바람이 물을 가져가면서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추운거에요. 그래서 잎에는 '물'을 가지고 있는데 나무가 겨울을 보내기 위해선 잎을 떨어뜨려야 해요. 그럼 그전에 산소를 만드는 초록색 잎 공장을 닫고 초록색 일하는 알갱이들이 모두 사라지면 숨어있던 붉은색 알갱이들이 보여서 단풍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단풍이 피고 나면 곧 나뭇잎은 땅으로 떨어져요. 떨어진 잎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서 내년에 피울 꽃과 나뭇잎, 열매의 양분이 된답니다. 어때요? 신기하죠? (겨울을 준비하는 자연) 이렇듯 식물은 겨울을 준비하며 단풍을 물들이고 잎을 떨어뜨려요. 열매도 떨어지고 난 후엔 '겨울눈'이라는 꽃눈과 잎눈을 만드는데요. 다람쥐가 도토리를 모으는 것처럼 식물의 양분을 내년에 틔울 꽃과 잎을 위해 모아두는 거랍니다. 동물 친구들은 다람쥐처럼 잘 곳과 먹을 것을 준비하여 긴긴 겨울잠에 들어가죠. 우리 친구들은 겨울방학을 하죠? 독감에 걸리지 않고 독감주사도 맞고 따뜻하게 옷을 입고 엄마, 아빠는 가을에서 겨울 이불로, 집을 따뜻하게 하죠. 다른 듯 보여도 자연 아래 우린 모두 하나이기에 추운 겨울을 견디기위해 같은 모습으로 준비한답니다.

(올 해 나에게 쓰는 칭찬 편지)
그럼, 우리 친구들의 겨울은 어떻게 준비할래요?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과의 마지막 시간을 위해 어떤 체험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다람쥐가 도토리를 쌓고 나뭇잎이 낙엽을 떨어뜨려 자신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칭찬 겨울눈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참 올해는 코로나19, 태풍 등으로 우리 친구들 정말 고생 많았어요. 힘든 올해를 잘 버텨줘서 고맙고 영상으로만 보는 수업에도 열심히 참여해줘서 고마워요. 그런 우리 친구들 스스로 나에게 쓰는 칭찬 편지쓰기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기 엽서에 올해를 잘 버텨준 나에게 쓰는 칭찬을 써보는 건데, 선생님은 이렇게 써볼게요. '2020년의 서경아, 친구들과 즐거운 유아숲학교를 위해 그동안 정말 수고했어. 올해의 노력으로 보다 내년엔 더욱 즐거운 유아숲학교를 만들자!' 짜잔, 이렇게 써보았어요.
나에게 하는 칭찬이 조금 부끄럽다면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께 편지를 써도 좋아요! 모두모두 빠짐없이 엽서 써보기 약속!
이대로도 좋지만 색연필과 사인펜으로 엽서를 꾸미고, 양면 테이프로 테두리를 감싼 다음, 그 위에 떨어진 낙엽을 붙여서 이렇게 완성! 친구들, 이 연필 뒤에는 작은 씨앗이 있어요. 글자연습하기, 그림그리기 등으로 이 연필을 모두 쓰고 연필을 설명서처럼 심으면 방울토마토, 해바라기, 나팔꽃 등 새싹이 자랄거에요. 그러니 긴긴 겨울이 끝나면 친구들, 꼭 화분에 심어 봐요!

(태백산 숲학교 졸업식)
좋아요, 우리 친구들. 모두모두 잘했어요! 선생님이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느꼈던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이야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와 자연은 하나랍니다.' 그러니 우리 사람만 특별하다고 다른 자연을 파괴하거나 다가오는 자연재해에 겁먹고 움츠려들지 않아도 되요. 자연을 파괴하는 존재는 우리 사람이 유일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것도 우리 사람만 할 수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은 태백산 숲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경 지킴이'랍니다. 6월 금대봉과 꽃도, 7월 당골과 곤충도, 8월 검룡소와 물도, 9월 만항재와 다람쥐와 도토리도, 그리고 오늘 10월 백천계곡과 단풍까지.
사실 자연을 모두 이야기하기엔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동네 큰 산인 태백산에 언제든 놀러 온다면 영상과 라이브해설을 통해 보았던 태백산을 직접 보고 꽃과 곤충, 다람쥐도 직접 보고 많이 사랑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체험키트 안에 함께 있는 나무구슬 보이나요? 나무구슬 하나 꺼내서 향기를 맡아볼래요? 무슨 냄새가 나나요? 바로 숲의 향기입니다. 숲의 향기가 잘 나지 않으면 물을 조금 묻히면 살아나요! (테이프) 이렇게 책상에 한 쪽 끈을 테이프로 고정시킨 다음에 내 손목 크기에 맞게 구슬을 넣어요. 친구들은 17개씩 넣었는데

	혹시 부족하면 함께 계신 선생님께서 별도로 드린 구슬로 아이들 팔목에 맞는 팔찌를 만들어보세요! (완제품) 짜잔, 이렇게 생겼어요! 이 구슬에 사인펜으로 글자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이건 우리 6월부터 10월까지 배운 자연 이야기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할 '약속의 팔찌'입니다. 숲의 향기는 숲에 자주 오지 못하는 겨울에도 숲을 느낄 수 있어요. 이렇듯 자연을 보호하는 마음은 바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한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선생님에게 더욱 좋은 양분이 되어 내년엔 더욱 재밌고 신나는 숲학교로 찾아올게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태백산국립공원 천서경 해설사, 꽃받침선생님이었어요! 안녕!